

코로나19/검사

한양대는 한양대병원과 연계해 2021년 9월부터 [코로나19](#) 진단을 위한 유전자증폭(PCR)검사 시스템을 운영한다. 2021학년도 2학기부터 확대되는 대면수업에 대비하여 실시하며, 의료기관인 한양대병원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면 관할 보건소에 즉시 통보된다는 장점이 있다.

주1회 의무 검사 대상

- 기숙사 거주자
-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을 듣는 학생

검사 이용 방법

- [HY-in](#)포털을 통해 검사시간 선택 가능
- 병원 내 검사소 위치
- 검사 후 4시간 이내 결과 통보
- 모든 검사 무료